

■ 제19회 문장청소년문학상 본심 심사(시) 김종일, 안미옥 시인

[시 부문 심사평_김종일]

문장청소년문학상 본심 대상작 중 시 작품은 총 다섯 편이었다. 지난 한해 전체 시 부문의 응모작 1,585편 중 본심 대상작은 5편에 불과한 만큼 그 수준은 매우 고르고 높았다. 올해 19회를 맞은 ‘문장청소년문학상’에 입상하고 미래에 기성 시인, 작가가 된 사례가 많다는 것에 대해 다시금 납득할 수 있었다.

작품의 완성도 등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청소년의 시기에만 발현될 수 있는 특징적인 에너지(창의성, 발전가능성 등)를 탐색하며 작품을 읽어나갔다. 앞서 밝혔듯 높은 수준과 각양각색의 개성들 속에서 우열을 가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음에도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아울러 시, 소설, 수필, 비평 등 장르가 혼재되어 정해지는 상의 종류가 있을 뿐, 그 차이는 매우 작았다는 점을 밝힌다.

가장 주목한 것은 「확신」이었다. 교실을 공간으로 교실 속의 ‘불안’을 새와 별의 메타포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초입부 주머니 속 사탕껍질의 바스락거림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연으로까지 자연스레 이어가며 중간부 펼쳐지는 별에 관한 소동과 소음을 감각적인 여운으로 갈무리하고 있다. 언술의 측면에서 조금급하지 않은 리듬의 조율과 무심한 듯 시적 긴장을 적절히 잡아내는 감각이 인상적이며, 전반적인 시의 구조 또한 완성도가 높았다.

「인어의 꿈」은 과감한 상상력의 스케일에서 오는 에너지의 확산이 인상적인 작품이었다. 다소 장황하고 관념성이 짙으나 ‘꿈속 개구리’라는 메타포를 집요하게 구체적으로 변주함으로써 그 관념성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다. 시적 언술이 활력 있게 확산되는 것은 이 시의 큰 장점이다. 나아가 그 에너지를 섬세하게 조율할 수 있다면, 시어 하나가 갖는 어감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연출할 수 있다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해변의 장례식」은 바다를 공간으로 매우 다양한 국면과 메타포들이 혼재되어 있다. 의도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나와 너)라는 화자의 구체성이 다소 희미하다. 그에 따라 여러 국면과 메타포들이 마치 흩날리는 눈처럼 휘발성이 강하다. 물론 이런 특성들이 이 시의 매력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시 속 화자들의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결정 같은 슬픔”은 불분명하다. 자신조차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내밀하고 모호한 정서를 오래도록 응시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것이 어떤 적절하고 절묘한 형식과 만날 때 꽤 구체적인 형상으로 그려질 수 있다. 그런 기대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던 작품이었다.

「밤을 읽은 미아」는 “세상의 근심은 겨우 매트릭스를 조금 적시다 이르게 오는 아침에 말랐다.” 등 담백하면서도 나름의 시적 울림을 주는 감각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만 보다 첨예한 시적 형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붕어빵과 살고

싶어요」는 “밤이 붕어빵의 팔으로 물들고 있으니/나 겨울에 영원히 살고 싶어요“ 등의 구절에서 볼 수 있듯 가볍고 감각적이며 발랄한 언술로 슬픔을 표현하는 능력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장점이라 할 만한 것들을 극대화할 나름의 구성과 그에 따른 참예한 연출은 발견되지 않았다. 달리 말하면 작은 단점만 보완된다면 장점은 두 배의 매력을 얻을 수 있다.

위의 감상은 한 사람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어느 독자에게는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그 부분에 대해 마음을 놓아서도 안 되고, 아쉬운 평가를 받았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 어쩌면 그것이 시의 묘미이고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시는 정답이 없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장청소년문학상’이라는 기회를 통해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들어보고, 나의 감각과 독자의 감각이 만나는 ‘접점’에 대해서 치열하고 예민하게 반응해 보면 좋겠다.

[시 부문 심사평_안미옥]

시 부문 응모작을 보며 전체적인 수준에 놀랐습니다. 청소년들이 펼쳐나가는 시 세계가 다채롭고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자유로운 상상력과 이미지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어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읽은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시적 에너지가 작품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 청소년만의 새로운 감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변의 장례식」은 문장 자체에서 숙련된 느낌이 들었고, 이미지를 운용하는 방식에서 시적 능력이 엿보였습니다. 폭죽, 눈, 날개, 얼음, 겨울, 소리, 울음 등의 이미지가 다채롭게 사용되며 마지막 문장으로 도달하여 폭죽과 울음 사이에 무수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섬세하게 직조하는 이미지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다만, 너와 나의 관계성과 화자가 처한 정황에 대해 생생하게 유추할 수 있는 지점을 조금 더 보고 싶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밤을 잃은 미아」는 담백한 문장으로 잔잔하게 시상을 펼쳐내는 시인데도, 인상 깊은 문장들에 집중하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방을 나온 밤은 태양의 빛에 말라갔다”나 “땅 아래 온갖 것으로 도식된 형광등이라는 이름의 별이었다”와 같은 문장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미니멀한 방식으로 발화하면서도 충분히 울림을 주고 있어 좋았습니다. 다만, 엄마와 내가 겪은 일상의 장면들이 조금 더 등장한다면 시가 더 풍성하게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붕어빵과 살고 싶어요」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를 다채롭게 활용하여 겨울에 대한 시적 감각을 펼쳐내는 면이 좋았습니다. 참신한 시적 전개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시였습니다. ‘영원한 겨울’에 대하여 새롭게 사유하게 하는 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시의 중반부의 전개가 다소 급작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

다. 통통 튀는 상상력을 뒷받침해 줄 장면들이 좀 더 등장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어의 꿈」은 ‘꿈’이라는 시적 배경을 통해 자유롭게 상상력을 펼쳐나가는 힘이 느껴지는 시였습니다. 다채로운 이미지들이 서로 연결되며 하나의 매력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비현실적인 장면들을 선명하고 섬세하게 그려내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화자가 처한 현실에서의 한계를 꿈을 통해 환상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쓸 작품들이 기대되는 시였습니다. 거친 방식이더라도 지금껏 잘 보지 못했던 상상력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웠고, 새로운 시를 보여준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여 심사위원들이 마음을 모아 우수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확신」은 안정감 있게 이미지를 풀어나가는 힘이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단정하고 단단한 이미지로 사유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새 때를 관찰하는 시선에서 섬세함을 엿보았고, 일상에서 시적 이미지를 기민하게 포착하는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확신’에 대한 사유를 새, 벌, 사탕 껌질 등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고, 발소리, 바스락거리는 소리, 소음 등을 포개놓으며 시를 전개해 나가는 면에 있어서 탁월한 시적 감각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가 변주되며 그려내는 장면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전체적인 시의 밀도가 높은 작품입니다. 심사위원들 모두 큰 이견 없이 최우수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의 언어는 투명하기도 하여서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내가 딛고 있는 삶의 풍경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읽고 쓰는 모든 것, 그리고 겪어나가는 삶의 모든 것이 언어에 담깁니다. 청소년기를 치열하게 겪어나가는 여러분의 시가 그래서 더 생동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시와 삶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맞물리며 우리를 조금 더 나아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의 힘을 믿으며 계속해서 쓰게 될 여러분의 시를 응원합니다. 시를 쓰며 어제와는 조금 다른 풍경을 바라보고, 꿈꾸고, 기대하며 살아갈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